

지역 매아리

고창군, 2018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이 '2018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총 1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고창군 1인 가구 노후복지 수요예측, 전기차 충전 입지 선정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구현과 공공분야 빅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32개 기관이 48건을 신청한 가운데 전문 평가단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고창군을 포함한 11개 기관에 10개 분야가 선정됐다. 전북도에서는 고창군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표준화해 빅데이터 분석업무 효율성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고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사·중복 분석에 대한 사전방지과 분야별 분석모델과 활용 데이터에 대한 표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군은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노후복지 수요를 예측을 통한 미래의 노인복지 정책에 활용하고, 전기차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입지 선정 요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제공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보건소

정신건강 통합간담회 실시

부안군보건소는 21일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경찰서 등 13개 유관기관 실무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한 2018년 제1차 정신건강 통합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안군청,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성모병원, 해성병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안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안군드림스타트센터,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토대로 부안군 정신건강 사업을 이해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의뢰,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박차'

고창군, 고창남초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고창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전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고창남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주로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취약 계층 보호구역 또는 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에 설치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광판에 표시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지난해 고창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고창남초 해당구간 과속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를 수용해 과속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했다. 과속경보시스템은 고성능 레이

더를 활용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이 제한속도(30km/h) 초과 시 현재 주행속도를 점멸 경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각심을 유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고창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고창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안전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교통표지판 개선,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모든 운전자들이 스톱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고창남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자 "민생 챙기고 현장에서 소통해야"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자가 "군민을 섬기는 군정이다. 군민과 함께 가는 군정으로, 군수가 가장 낮은 곳에서 상머슴이 되어 봉사하는 고창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당선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고창군민의 강한 의지를 받아들여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자원에 청정 자연자원까지 두루 갖춘 고창군은 미래 백년대계의 답을 농업생명식품산업과 문화관광에서 찾겠다"며 "직제개편 등을 통해 농수축산업부서를 수석국으로 승격시키고 군정의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군정은 군민에 도움이 되는 것, 고창군 미래 발전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민의 참여를 대

폭 확대할 것이며 전문가와 현장에서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하고 "공무원들은 군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자세로, 지금까지의 행동과 태도를 모두 바꿔 민생을 챙기고 현장에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선 7기 제47회 고창군수 취임식은 오는 7월 1일 오후 7시부터 고창군청 광장에서(우천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홍·단란주점 식품위생관리 등 특별점검

고창군, 오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창군이 오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내 유홍주점과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관련 위생요소를 제거해 하절기 식중독 예방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판에 목적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유홍종사자의 명부기록 관리 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업소 내

비상구 폐쇄·장애물 방치 여부 ▲순전등 및 소화기 정상작동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계도와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 위법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철저한 식품위생관리와 더불어 영업장 내 화재발생 등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업주의 안전의식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교육

부안군은 지난 20일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관내 농가 90여명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상이변 등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많은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별 자연재해 피해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본부 김영식 차장을 초빙해 보험 가입기간, 가입자격 및 가입 품종, 개선된 보험 상품 안내, 보험금 지급 사례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아산병원, 25일 무료 진료 실시

웅동면 칠석리 외칠마을서

정읍시와 정읍아산병원이 오는 25일 웅동면 칠석리 외칠마을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진료는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 사수! 서남부권 광역 응급진료체계구축사업(이하 서남권 응급진료체계구축사업)'과 관련, 거점단위 순회 출장무료진료 활동이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증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상담에서부터 증상별 의약품 처방까지 따뜻한 진료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거점 단위 출장 무료 진료는 정읍·고창·부안의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단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위험군 관리와



위한 사후 연계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아산병원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된 의료 복지를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 소외지역이 없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20일 북면초등학교에서 건치 퀴즈왕 선발대회를 가졌다.

북면초등학교 건치 퀴즈왕 선발대회

정읍시보건소, 구강건강 일깨우기 일환 퀴즈왕 홍아경 학생, 아차상 염가희 학생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20일 북면초등학교에서 건치 퀴즈왕 선발대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대회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매년 6월 9일)을 기념하고 학생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물론 충치 예방, 치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치아 건강 상식을 주제로 한 퀴즈 풀이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퀴즈왕은 홍아경(5학년), 아차상은 염가희(4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보건소는 "어릴 적 치아 관리가 평생 간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구강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구강 보건지식을 제공한 물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구강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Jin'an Gao-won' (진안고원) medicinal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bowl of ginseng and other ingredients, with two bottles of the wine in the foreground. Text includes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Korea's Ginseng Special District Jin'an Gao-won),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World Liquor Evaluation Award Gold Medal), and '眞心 홍삼주' (Sincere Heart Ginseng Wine).